

2015 새 설계 강인 규나주시장

“목사골 ‘에너지 수도’ 기반 구축...농업인월급제 시범 시행”

“올해는 과거 ‘천년 목사골 나주’에서 미래의 ‘에너지 도시’로 만들고, ‘위대한 미래 100년의 나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9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청양 피의 해로 나주시민 모두 지혜와 신선함이 가득하고, 운순한 양치려 지혜롭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한해 미래 100년의 준비를 위해 열심히 뛰어난 성과를 기쁨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에너지 경제수도로 도약하는 나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먼저 강 시장은 “조직개편에서 새로 신설된 ‘시민소통실’을 중심으로 소통, 참여, 협력과 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사업 전용카드 사용과 시민 감사관제 도입 등은 이미 지난해 완료됐고, 올해는 ‘100원 택시’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마을 공동육식 확대, ‘농업인 월급제’ 시행, 복지재단 설립 등 시민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물론 스마트그리드, 사물 인터넷, 실감 미디어,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나주

한전과 스마트 그리드 사업 공조 복지재단 설립·무상급식 확대 나주목사 유적 복원 본격 추진

를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과거 ‘천년 목사골’에서 나아가 ‘에너지 수도’라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으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관과 연계,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추진 및 실감미디어센터 완공 ▲16개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가정창의융합연구소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추진 ▲IT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물인터넷 사업과 한전과 연계한 스마트 그리드사업 발굴 등을 벌인다.

시는 농업·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을철 수확기에 지급되는 벼 판매대금을 약정농가에 미리 매월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관내 4개 농협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마을 공동육식도 연 300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급식일수도 25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매년 가격파동이 반복되고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양파, 고추, 배추, 무 등)을 대상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나주형’ 로컬푸드 체계를 구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빛가람 에너지밸리 기반 조성
- ▲호혜원 돈사 보양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초·중·고 무상급식, 무지개학교, 해외어학연수 교육여건 개선
- ▲농업인월급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안정적인 농촌만들기
- ▲오지마을 100원 택시, 소상공인지원 확대지원 등 공동체 구현
- ▲천년역사도시 재생사업 본격 추진
-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행정 추진

축할 계획이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인근 도시의 유능인력을 중개해주는 ‘노농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전력 등 이전기관과 협력해 연관기업을 포함한 300개 기업을 유치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50%를 지원하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 ‘나주 복지재단’ 설립 ▲농촌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버스 미운행지역 19개 마을에 100원 택시 운행 ▲동(洞)지역 고등학교 7개교 2753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활기찬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도 ▲나주점사 공장을 활용한 생활문화 예술 공간 마련(49억원) ▲꼭짓도시 만들기 사업(19억원) ▲나주·경북 상주 공동프로젝트인 나주목(牧) 유적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초·중학생 해외 어학연수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2018년까지 4년간 16억원을 지원하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 작은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등도 추진하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과 혁신도시 건축허가 사전검토제도 운영키로 했다.

강인규 시장은 “오는 3월 호남선 KTX 개통을 비롯해 하게 유니버시아드 5개 종목 나주 개최,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대의 개막, 2016년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디자인 박람회’ 등의 호기를 잘 살려 9만 시민과 1000여 공직자와 함께 10만 인구회복과 나주의 미래 100년을 다지는 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철현·손영철기자 chung@

한전KPS 나주연수원 5월 첫삽 뜬다

다도면 나주호 주변 2만1200㎡ 규모 내년말 완공

한전KPS의 나주연수원(R&D Complex·복합 연구시설)이 오는 5월 첫 삽을 뜬다.

7일 한전KPS에 따르면 나주시는 최근 연수원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한전KPS는 3월 중 국토부 기술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어 4월경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한 뒤 오는 5월 착공해 2016년 말까지 연수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한전KPS 나주연수원은 태안연수원과 고리연구소를 통합한 복합센터로, 국가의 근간시설인 국내 발전시설 정비와 해외진출 기술인력 양성을 도모해 된다.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나주호 주변에 들어서는 연수원은 건축 연면적 2만1200㎡,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교육·연구시설과 관리시설, 휴식 시설 등 총 3개 동으로 신축된다. 부대시설로는 육의 주차장과 오수처리 시설인 자연정화습지,



한전KPS 나주연수원 조감도

녹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전KPS 연수원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원은 연구원과 강사 등 120여 명이 상주하며 하루 평균 교육생은 200여 명에, 연간 이용 인원은 7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문화원장에 임경렬씨

제14대 나주문화원장에 임경렬(54·사진) 수석부원장이 당선됐다.

임 원장은 최근 나주시 농어업회의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141표 중 78표를 획득, 나익수 전 나주시의원을 눌렀다.

4년간 나주문화원을 이끄는 신임 임 원장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는 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원, 소통하는 문화원,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교량 역할을 하는 문화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나주문화원의 독립원사 확보를 비롯해 문화원 동아리 활성화, 4개 지역에서 전승하는 나주 들노래와 안정현 선생의 음악 계승사업 등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 출신인 임 원장은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주)데이데이스프랜차이즈 대표를 역임했다. 계간지 ‘발걸음’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으며, 시집 ‘쓸쓸한 파수’를 펴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올해 농업분야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나주시 2월 11일까지...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도 함께

나주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도 시행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과 2016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을 2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사업종사자 등으로, 지난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일지 등을 첨부해 사업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농업분야 자체 지원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농업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사업을 비롯해 ▲일반 과수 ▲농·축산물 가공 ▲친환경 학교급식 ▲귀농·귀촌 ▲외국인 여성농업인 지원 ▲농기계 지원 ▲수입 개방 대비 시범사업 ▲축산발전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또한 국·도비 지원이 되는 2016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식량, 원예·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 광역 등으로 자율사업 52개 분야와 공공사업 18개 분야 총 70개의 대분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시 자체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새해 영농교육, 반상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 게시와 자연마을 단위 공고 문 및 신청 안내문 배부, 행정 일제방송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된 시 자체 시책사업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16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예산신청이 이뤄지게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복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